公害 有感

姜 永 喆

코오롱엔지니어링(株)
上下水事業部長

地球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 人類가 生命을 依持하고 있는 唯一한 安息處인 廣場으로서 이 아름다운 自然을 우리 後孫들에게 물려 주는 것만이 現實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責任이 아닌가 생각된다.

約 5年前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日·歐·美 25個國의 Business Leader 約 75名으로 組織된 國際團體인 「Rome Club」은 「成長의 限界」란 報告書에서 人口, 食糧, 工業生産, 天然資源, 公害의 다섯가지 要素로 부터 人類가 살고 있는 이 地球의 將來를 豫測하여 「紀元 2,000年에는 資源은 枯渴 食糧危機가 表面化되어 地球 汚染은 現在의 10倍 以上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警告한 일이 우리들 記憶에 생생하다.

그리고 人類의 危機回避와 地球의 均衡回復을 위해서 「工業 및 農業生産에 있어서의 汚染物質 排出量을 70年代의 1/4 以下로 줄인다」는 등의 7가지 種類의 政策을 提案하여 이의 實踐을 世界 各國에 呼訴한 바가 있다.

物質萬能主義的 風潮의 世上속에서 人口의 增加와 그칠줄 모르는 人間의 慾求增大는 相乘的으로 生産을 높여 資源의 浪費와 廢棄物의 增加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過激한 破滅의 날까지를 憂慮할 程度까지 이르렀다.

우리 生活에 절대 必要한 물도 또한 重要한 天然資源임에는 틀림없다. 石油등과는 달리 消費하여 없어지는 일은 없다. 다만 汚染을 받아서 그 價値가 喪失되기 쉬운 性質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地球上에는 어름이나 水蒸氣를 包含하여 17×10^{20}g의 물이 있으나 眞水는 겨우 0.25×10^{20}g 뿐이라고 하며 이중 一部를 낚시터나 水浴등 「리크레이숀」을 包含하여 水資源으로서 利用하고 있다. 이렇게 限定된 水資源에 대해서 需要는 日益 增加趨勢에 있다. 우스운 이야기 같으나 現狀에서는 利用度가 높을 수록 汚染에 의해서 資源의 量은 減少하는 傾向에 있다. 따라서 資源으로서의 물의 價値를 保全하고 有效 適正히 水資源을 利用하는 것이 人類에 있어서 重要한 課題로 되고 있다.

벌써 오래 前부터 水質汚染防止法의 制定, 水資源管理의 改革 Program 等 最近에 있어서 各國의 一連의 움직임은 이러한 切迫한 情勢를 反映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即 綜合的인 물管理를 안하고는 안될 轉換點인 것이다. 언젠가 美國의 캔사스州 Chanute에서 旱魃이 甚할 때 7번까지나 都市下水를 循還하여 利用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漸次的으로 國家的인 次元에서 綜合 多目的 水資源開發을 서두르고 있으나 결코 이러한 일들은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即 우리나라의 大都市에서도 멀지않아 물 需要의 增大에 對處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下水를 再利用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멀지 않아 올 것이다.

물의 資源이란 無限大로 있다고 생각하는 時代는 이미 지난지가 오래인 것 같다. 再利用이란 廢水로 부터 用水에로의 變換이기 때문에 이것이 大規模로 實施될 경우 물 Cycle에는 複雜한 變化가 나타나고 여기에 따라 물 管理도 Cycle 全體를 把握할 수 있는 綜合的인 管理 System의 體制가 必要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때 일수록 環境基準과 排水基準 그리고 河川, 上·下水道, 工業用水, 農業用水, 水産 等 各各 相反하는 利害때문에 相互의 意思疎通이 충분치 못한 우리들의 姿勢나 各者가 人類의 生命을 保護한다는 使命感을 가지고 環境事業에 臨해야 될 姿勢나 마음 가짐을 根本的으로 再考하여야 될 重要한 時期가 아닌가 생각된다.